



KOTRA 워싱턴 D.C. 경제통상 브리핑은 미국의 주요 경제통상 현안 이슈를 중심으로 매주 2회(화/목) 배포합니다.



📁 주요 내용

🎯 워싱턴 D.C. 포커스

- (경제전망) 2026년 현지 주요 기관이 바라본 미국 경제 전망 2
- 2026년 미국 GDP 성장률은 2% 내외로 전망되며, AI 관련 투자가 주요 성장 동력으로 평가

💬 경제통상 동향

- (무역정책) 트럼프 정부 2025년 통상·관세 조치 미완 과제 및 후속 전망 6
- (입법동향) 美 의회, 클라우드 우회 차단 '원격 접속 보안법' 재발의 7
- (반도체) 美, 中 삼성·SK 공장 대상 2026년 장비 반입 年단위 라이선스 승인 8

⚖️ 의회법안 동향

- 특이 동향 없음. 9

💬 이시각 헤드라인

- 언론사 주요 보도내역 10
- 워싱턴무역관 공지사항 11

📅 워싱턴 D.C. 주요일정

2025.12.30(화)	• 예정된 일정 없음(None scheduled)
2025.12.31(수)	• 예정된 일정 없음(None scheduled)
2026.1.1(목)	• 신년 휴일(New Year's day)
2026.1.2(금)	• 12월 S&P 미국 제조업지수(S&P final U.S. manufacturing)

(경제전망) 2026년 현지 주요 기관이 바라본 미국 경제 전망

1. 개요

□ 미국 경제 현황 및 2026년 전망

- 미국 경제는 고금리·인플레이션·정책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성장 예상
 - 2026년 실질 GDP 성장률은 2% 내외로 전망되며, 전년대비 소폭 둔화하나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
 - 현지 주요 기관들은 고소득층 중심의 소비 증가, AI 관련 기업 투자 확대와 주식시장 강세에 따른 자산 효과 증가가 미국 경제를 견인할 것으로 평가

〈현지 주요 기관별 2026년 미국 GDP 전망〉

구분	GDP 전망	주요 성장 동력	주요 제약 요인	기타 전망 및 특징
딜로이트 (Deloitte)	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AI 투자 및 주가 상승 채불임금 지급에 따른 소비 회복 기업 투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가 추가 상승 여력 제한 이민 감소로 고용 둔화 관세 부담의 소비자 전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AI 지출 감소 시 경기 침체 가능성 연준 금리 인하 여력 (최대 375bp)
뱅크오브아메리카 (BofA)	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AI 투자 지속 감세·재정 부양책·기업 투자 확대 금리 인하 효과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AI 버블 논란 및 주가 변동성 K자형 회복, 재정 불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AI 붐 지속 예상 컨센서스 상회 성장 전망
JP모건 (J.P. Morgan)	견조한 성장, 리스크 높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글로벌 성장세 견조 AI 확산 및 설비투자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동 수요 둔화 소비 양극화 및 기업 심리 악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AI 섹터 중심의 시장 양극화 하방 위험 요인 상존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St. Louis Fed)	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년 수준의 경제 흐름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업률·물가 소폭 상승 통계 부족(섣다른 여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리 소폭 하락 전망 예측 불확실성 확대
EY 파르테논 (EY-Parthenon)	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AI 투자 지속 고소득층 소비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세·이민 규제 → 노동공급 제약 낮은 소득층 소비 위축 과학기술 부문 투자 부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준, 2회 추가 금리 인하 예상 통화정책 노선 갈등 가능성

[자료: 현지 주요 기관 자료 및 언론 보도 종합]

2. 상 세

□ 현지 주요 기관별 미국 GDP 전망

- (딜로이트) 2026년 GDP 2.1% 성장 전망, AI 투자·소비·기업 투자가 핵심 동력
 - 2026년 실질 GDP 성장률을 2.1%으로 전망했으며, △AI 관련 주가 상승에 따른 소비 증가, △셋다운 이후 체불 임금 지급에 따른 2026년 초 소비 회복을 주요 성장 요인으로 분석
 - 제약 요인으로 △주가 추가 상승 여력 제한, △이민 감소에 따른 고용 증가 둔화, △관세 비용의 소비자 전가 등으로 분석
 - AI 관련 지출 감소시 경기 침체 우려 존재하지만, 연준은 최대 375bp까지 금리 인하 여력을 보유해 필요시 경제 부양 가능
- (뱅크오브아메리카) GDP 2.4% 성장 전망, AI가 핵심 동력으로 분석
 - 2026년 4분기 기준 GDP 성장률 2.4%으로 컨센서스 상회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감세 정책, 기업 투자 증가, 재정 부양·연준 금리 인하 시차 효과 반영
 - AI 투자가 경제 성장에 기여하고 있으며, 아직 버블 국면은 아닌 것으로 판단
 - AI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재평가와 K자형 회복·재정 우위를 변동성 요인으로 평가
- (JP모건) 글로벌 성장은 비교적 견조, 하방 위협은 높은 수준으로 평가
 - 불균형 통화정책, AI 확산, 시장 양극화 심화, 미국 정책 기조 변화 등으로 2026년 거시경제·금융환경 재편 전망
 - △주식 시장의 AI 관련 섹터·非 AI 섹터 구분, △ 강한 설비투자과 둔화된 노동 수요가 공존, △가계 소비에도 계층 간 격차 확대를 근거로 미국 경제 양극화에 주목해야 한다고 분석
 - 선제적인 재정정책으로 글로벌 성장이 지속되는 반면, 기업 심리 악화·노동 시장 둔화로 하방 위협 존재

- (세인트루이스 연준) 2026년 경제 전망은 2025년과 유사한 수치로 예상
 - 주요 전망기관들은 실질 GDP 성장률 1.9%로 전망했으며, 전년대비 유사한 수준의 경제 성장을 예상
 - 전년대비 실업률·인플레이션 소폭 상승, 금리는 소폭 하락 할 것으로 예상
 - 연방정부 섯다운으로 인한 통계 부족이 전망자 간 의견 차이를 확대한 것으로 평가
- (EY 파르테논) GDP 성장률이 1.9%로 예상
 - 관세와 이민 제한으로 노동 공급이 압박받으며, 물가는 상승 조짐을 보이면서 미국 성장률은 1.9% 성장 전망
 - 고소득층의 소비 증가 및 저소득층의 가계 부담 확대로 인한 소비 감소를 예상했으며, AI 관련 투자는 지속되나 非 기술 부문은 높은 관세 비용·정책 불확실성으로 위축되는 양극화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
 - 연준은 2026년 2차례 추가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되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내부 의견의 양극화와 리더십 변화로 인한 통화정책 경로를 둘러싼 갈등 심화 가능성

3. 시사점

□ 주요 리스크 및 기업 영향

- 주요 리스크는 △AI 투자 및 자산가격 변동 △소비 구조의 양극화 △비(非) 기술 제조업의 부담 확대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으로 요약
 - AI 부문이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작용하나, 특정 산업에 성장세가 집중되어 경기 구조의 불균형 심화 우려 존재
 - 기업은 고소득층 중심의 소비 확산에 대응하여 프리미엄 시장 공략 및 제품·서비스 고도화 전략 강화 필요
 - 비(非)기술 제조업과 소비재 산업은 관세·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비용 구조 개선 및 공급망 다변화 추진이 요구됨

▪ 작성자 | 워싱턴 D.C. 무역관 김기범

▪ 자료원 | 딜로이트([12.19](#)),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12.18](#)) 무역관 자료, 싱크탱크 및 현지 언론 취합

(무역정책) 트럼프 정부 2025년 통상·관세 조치 미완 과제 및 후속 전망

- 트럼프 정부, 새해를 앞두고 여전히 다수의 통상 현안 미해결 상태 유지
 - △무역법 301조 및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조사 △주요 교역국과의 무역 협상 △USMCA(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 재검토 등이 잔여 핵심 통상 과제로 부각
- '26년에도 중국·북미·공급망 관련 조치가 동시다발적으로 가시화될 전망
 - 미국의 통상 전략은 단기 휴전과 중장기 압박을 병행하는 구조. 반도체·의약품 등 전략 산업 보호, 232·301조의 광범위한 활용, 정치·외교-통상의 결합이 지속될 전망

〈301조 및 232조 조사(미완)〉

구분	대상/분야	주요 내용	현황 및 전망
301조	중국 반도체 정책	중국 반도체 정책이 미국 산업에 미치는 피해 조사	즉각 추가 관세 보류. '24.6월 관세 인상 예정(세부 미정)
	미·중 1단계 무역협정	'20년에 타결한 무역협정의 이행 여부 조사	'25.10월 조사 개시.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관세 결정
	브라질	디지털 무역, 지재권, 산림파괴, 부정부패 등 조사	'25.7월 조사 개시. 현행 50% 관세에 추가 여부
232조	반도체	국가안보 영향 평가	'25.4월 조사 개시 조사 마감 기한(12.27) 미준수
	의약품	국가안보 영향 평가	'25.4월 조사 개시 조사 마감 기한(12.27) 미준수 *14개 제약사와 3년간 관세 유예 합의
	핵심 광물	국가안보 영향 평가	'25.4월 조사 개시 조사 마감 기한(12.27) 미준수
	항공기 및 엔진	국가안보 영향 평가	'25.5월 조사 개시
	폴리실리콘	국가안보 영향 평가	'25.7월 조사 개시
	무인항공기(UAS)	국가안보 영향 평가	'25.7월 조사 개시
	풍력터빈	국가안보 영향 평가	'25.8월 조사 개시
	개인보호장비	국가안보 영향 평가	'25.9월 조사 개시
	로봇 및 산업기계	국가안보 영향 평가	'25.9월 조사 개시

※ '25년 중 12개 품목에 대한 232조 조사 개시(구리, 목재, 주방 캐비닛, 중·대형 트럭 대상 관세 개시)

〈주요 교역국과의 무역 협상 교착 상태〉

국가/지역	협상 상태	관세 수준 및 특징
중국	미타결	평균 약 55% 관세, 반도체 일부 유예
인도	미타결	상호관세 25% + 러시아 원유 수입 관련 25%
대만	미타결	상호관세 20%, 첨단 반도체 면제

※ '25년 중 한국, EU, 일본, 호주, 영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 스위스 등과 무역 합의 도출

〈USMCA(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 재검토〉

항목	내용
재검토 시한	2026년 7월 1일 * 정식 공동 검토 회담은 '26.1월 중순부터 논의 시작 예정
핵심 쟁점	① 16년 단순 연장 여부 ② 의회 승인 필요 개정 여부 ③ 멕시코·캐나다에 대한 232조 예외 또는 특혜 적용 여부 ④ 자동차·부품 원산지 규정 ⑤ 중국 대응을 위한 북미 공급망 통제 ⑥ 농업 및 식품 무역 분쟁 ⑦ 노동·환경 조항의 집행 강화
주요 리스크	① 철강·알루미늄·자동차 등 232조 관세 유지 여부 ② 이민, 마약(펜타닐), 국경 통제 등 안보·외교 이슈를 통상과 연계

※ USTR은 '25년 9월 관보를 통해 공개 의견 제출 요청 ⇒ 12월 3~5일에 공식 공청회 개최

- | | |
|-------|---|
| ■ 작성자 | 워싱턴DC 무역관 이정민 |
| ■ 자료원 | 폴리티코 프로(12.24), 상무부 BIS (12.29), ST&R (12.29) |

(입법동향) 美 의회, 클라우드 우회 차단 ‘원격 접속 보안법’ 재발의

- (개요) 美 상·하원, 클라우드 통한 첨단 반도체 원격 접속 규제 법안 재발의 (12.21)
 - 론 와이든(민주), 데이브 매킨(공화) 상원의원 등 초당적 그룹은 미 산업보안국(BIS)이 클라우드 등 원격 접속 기술에 수출통제를 부과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원격 접속 보안법(Remote Access Security Act)’을 재발의
 - 동 법안은 중국·러시아·이란·북한 등 우려 국가 기업들이 미국산 첨단 반도체를 직접 구매하지 않고도 해외 데이터센터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AI 모델 학습 등 컴퓨팅 자원을 활용하는 ‘클라우드 우회로’ 차단이 주요 목적
- (상세) ECRA 규제 사각지대 해소 및 BIS ‘컴퓨팅 파워’ 통제 권한 명문화
 - 매킨 의원은 성명에서 현행 ECRA가 물리적 기술·제품 이동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네트워크를 통한 원격 접속은 통제 대상에서 빠져 있는 점을 지적하며, 원격 접속도 물리적 소유와 동일 수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
 - 법안은 ‘원격 접속’을 미국 수출통제 대상 품목(상무부 컨트롤리스트 등)에 대한 외국인의 네트워크·클라우드 기반 접근으로 정의하고, 국가안보상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미 상무부가 별도 수출라이선스 취득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부여
 - * 중국 기업이 제3국 데이터센터에 구축된 美 통제 대상 고성능 AI 칩(H100 등) 클러스터를 임대해 AI 모델을 학습하려는 경우, 상무부가 이를 ‘원격 접근 수출’로 보고 라이선스를 요구하거나 사실상 차단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게 됨.
 - 하원은 2024년 9월 Lawler 의원 발의 원격 접속 보안법(H.R.8152)을 중국 대응 입법 패키지의 일환으로 통과시킨 바 있으며, 119대 의회에서도 후속 법안(H.R.2683 등)이 계속 상정되는 등 실제 법제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
 - 미 정부가 하드웨어 수출 차단을 넘어 ‘컴퓨팅 파워’ 자체를 전략 자산화하여 통제하려는 의지를 명확히 한 것으로 분석되며, 향후 글로벌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들에 대해 고객 실사(Know Your Customer) 의무가 대폭 강화될 것으로 예상

■ 작성자	워싱턴 D.C. 무역관 김준희
■ 자료원	의회 보도자료(원문), 인사이드(12.23)

(반도체) 美, 中 삼성·SK 공장 대상 2026년 장비 반입 年단위 라이선스 승인

- (개요) 삼성·SK하이닉스, 2026년 中 생산시설용 美 장비 반입 승인
 - 로이터에 따르면 미 정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내 반도체 생산시설을 대상으로, 2026년 기간 미국산 반도체 제조장비 반입을 허용하는 연간 수출 라이선스를 부여
 - 이는 앞서 미국이 일부 기업에 부여했던 對中 수출 규제 예외 조치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마련된 조치로, 관련 기업들의 중국 내 생산 활동이 일정 기간 지속될 수 있는 제도적 여지를 제공하는 것으로 해석
- (상세) 美 VEU 종료 및 年단위 라이선스 체계 전환 … 對中 통제 기조는 유지
 - 보도에 따르면, 삼성전자·SK하이닉스·TSMC 등에 적용되던 ‘검증된 최종사용자 (Validated End User, VEU)’ 지위는 12월 31일 종료되며, 이후 중국 내 공장으로서의 미국산 반도체 장비 반입은 연간 라이선스 심사를 거치는 체계로 전환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2026년 적용 라이선스를 확보했으나, 향후 연도별로 승인 여부를 다시 확인해야 하는 구조가 형성되면서, 업계는 중국 내 설비 투자 업그레이드 계획과 관련해 정책 변수에 대한 모니터링이 중요할 것으로 전망

■ 작성자	워싱턴 D.C. 무역관 김준희
■ 자료원	로이터(12.30)

※ 의회법안 동향

* 특이동향 없음.

현지 언론사 주요 보도내역

언론사	주요 보도내역
The Wall Street Journal	<p><u>Colombia's Cocaine Smugglers Employ a Deadly New Weapon—Drones</u> (‘드론’으로 무장한 콜롬비아 코카인 밀수단)</p> <p>트럼프 대통령이 “마약 테러리스트”라고 명명한 콜롬비아 코카인 밀수단의 폭발물 장착 드론 공격이 증가하고 있어. '24년 4월 이후 약 400건의 공격이 감행돼 28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져</p>
The Washington Post	<p><u>Homeland Security seeks emergency demolition of historic buildings in D.C.</u> (국토안보부, D.C. 역사적 건물 ‘비상 철거’ 촉구)</p> <p>크리스티 노움 국토안보부 장관은 D.C. 남동부 세인트 엘리자베스 소재 12채의 역사적 건물이 “생명과 재산에 대한 위협”을 초래한다며 비상 철거를 요청한 것으로 밝혀져. 이에 대해 보존 단체들은 일방적인 비상사태 선언은 합법적인 절차를 우회하려는 시도라며 비판을 제기해</p>
The New York Times	<p><u>New Year's Eve Concerts at Kennedy Center Are Canceled</u> (트럼프-케네디 센터...새해 전야 콘서트도 취소돼)</p> <p>트럼프-케네디 센터의 이름 변경은 연례 크리스마스 이브 재즈 콘서트를 비롯해 새해 전야 재즈 앙상블과 뉴욕 무용단 공연 취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돼. 뉴욕 무용단 대표는 “재정적으로는 (공연 취소가) 파괴적이지만 도덕적으로는 짜릿하다”라고 밝혀</p>
CNN	<p><u>National Guard to patrol New Orleans for New Year's a year after deadly attack</u> (뉴올리언스 신년 총격 사건 1년 후...주방위군 배치 개시)</p> <p>뉴올리언스에서 올해 새해 첫 날 총격 사건으로 14명이 사망한데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금일부 주방위군 배치를 승인해. 800여명의 지방, 주, 연방 법집행 관계자가 총격 사건이 발생했던 버번 스트리트의 차량 통제, 순찰 등을 맡을 것으로 알려져</p>
USA Today	<p><u>Trump administration can share certain Medicaid information with ICE, judge rules</u> (연방판사, 트럼프 행정부의 ICE 메디케이드 정보 공유 합법 판결)</p> <p>연방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이민자에 대한 메디케이드 정보를 ICE와 공유할 수 있다고 판결해. 공유할 수 있는 정보는 엄격히 제한되지만 기본적인 약력, 연락처 등의 공유는 법적으로 명확히 허용된다고 밝혀</p>

* 미국 동부 시간 12월 30일 15시 기준

워싱턴 D.C. 무역관 공지사항

◆ 주요 경제통상 현안을 빠르게, **경제통상리포트** (과거 리포트 : [해드림 글로벌이슈모니터링](#))

발간번호	제목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발간시기
US25-51	골드만삭스 2026년 세계경제 전망 주요 내용 및 시사점	2025.12월
US25-50	美 2026 국방수권법(NDAA)로 살펴본 미국 국방정책 방향	2025.12월
US25-49	미·중 경제안보 검토 위원회(USCC) 의회 연례 보고서 주요 내용 및 시사점	2025.12월
US25-48	워싱턴 국제무역협회 'Trade & Tech Summit' 내용 및 시사점	2025.12월
US25-47	세계무역기구(WTO) 개혁을 둘러싼 미국의 인식 전환과 통상 질서 변화	2025.12월
US25-46	2026년 USMCA 공동재검토 주요 일정 및 3국 입장과 현지 평가	2025.12월
US25-45	2025년 백악관 국가안보 전략 보고서 특이점과 경제무역 합의	2025.12월
US25-44	美-中 반도체 디커플링의 경제적 영향과 시사점	2025.12월
US25-43	트럼프 정부, 미국형 소버린 AI 구축을 위한 『제네시스 미션』 출범	2025.12월
US25-42	美 연방 대법원 IEEPA 관세 재판 동향 및 트럼프 관세 플랜 B 전망	2025.11월
US25-41	美 연방정부 섯다운 종료 및 예산 합의 관련 주요 동향	2025.11월
US25-40	IMF 세계경제전망(WEO) 발표 및 주요 시사점	2025.11월
US25-39	미국 중·대형 트럭 신규 관세 조치 주요 내용 및 현지 반응	2025.10월
US25-38	美 무역전쟁이 안전자산으로서의 달러에 미치는 영향 분석	2025.10월
US25-37	美 특허의약품 관세 정책 추진 및 제약사별 대응 동향	2025.10월

◆ 전문가가 읽어주는 경제통상 이슈, **코트라 인터뷰 시리즈** (과거 인터뷰 : [유튜브 KOTRA TV](#))

인터뷰번호	제목	바로가기
코인사-23 (2025.8.26.)		
코인사-22 (2025.5.13.)		

문의	이메일	전화
	jwshim@kotra.or.kr	+1) 202-857-7919
	nature.shim@kotra.or.kr	